

## 충무공 이순신(1545~1598)

정두경  
(워싱턴 문인회)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 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끊나니.’ 장군의 우국충절과 외로운 정서를 읊은 시조이다.

오늘날 내우외환의 위기 상황에서 애국 애족의 대명사로 온 겨레의 태양으로서 존경 받는 공의 생애를 탄신 461 주년을 맞아 다시 조명해 보는 것이 구국의 진로와 지표로 확신 하기에 뜻 깊은 일로 생각된다.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에도 님의 업적과 인간상이 날로 새롭게 높이 평가되고 있음은 어둠이 짙을수록 더욱 밝아지는 불빛처럼 나라의 어려운 현실과 미래를 밝혀주는 등대가 되기 때문이다.

순신은 청빈하고 엄격한 선비의 가문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글과 무술을 즐겼고, 지도력과 지능이 탁월한 꼬마 대장으로서 명성을 떨쳤으며, 곧은 성격과 정의감이 강한 소년기를 거쳐 비록 뒤늦은 관군 진출이었지만 실망과 후회 없는 성실한 노력과 능력으로 대기만성(大器晚成)의 뜻을 이루었다. 그는 군 생활 중 직속 상관인 서익의 부당한 청탁에 단호히 거절한 청백한 정의의 용장으로서 본임을 다 했으나 이로 인한 파직에도 원망하지 않고 본인의 의무를 다한 관대하고 대범한 군인으로서 존경을 받았고, 원균의 시기와 질투에 의한 모함과 중상으로 죽음의 위기에서도 백의종군으로 희생적인 위국 충정과 구국의 대열에서 책무를 다 하였다.

세 차례의 모함 중상에 의한 부당한 파직의 역경 속에서도 원망과 실망없는 재기로 나라 지킨 백의 장군! 임진왜란의 싸움터에선 필생즉사(必生即死), 필사즉생(必死即生)을 좌우명으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知彼知己면 百戰百勝)을 기본 전술로 한 학익전법(鶴翼戰法)을 구사하여 전승무패로 적의 해상 격퇴와 진로를 차단 함으로써 나라와 겨레를 구한 전과는 실로 전 세계 전사에 없었던 일로 오죽하면 적국인 일본 제독, 도고헤이 하찌로까지 세계 해전사의 영웅인 영국의 넬슨보다 더 위대한 명장으로 추앙한 사유는 넬슨은 국가에서 마련된 모든 전투 장비로 영웅이 되었지만 순신은 손수 무에서 유를 창출하여 전승한 영웅으로 높은 평가를 했다고 한다.

명량 해전(1597)에선 불과 12척의 전함으로 10배가 넘는 133척의 왜 적함을 격퇴한 전과는 ‘소수는 다수의 적을 상대할 수 없다’는 중과부적(衆寡不

敵)의 뜻을 무너뜨린 전술과 용맹을 겸비한 위대한 지도력과 부하에겐 가족 같은 사랑과 정을 베푸는 덕장이기도 하다.

7년간의 기나긴 난중일기에 하루도 빠짐없는 나라와 노모님 걱정으로 효심이 지극한 공이었지만 가까운 거리의 어머니를 3년간 뵙지 못했고, 위독한 부인의 병고에도 나라의 위급을 우선하여 찾지 못한 공사를 엄격히 구분한 희생과 멸사봉공의 정신!

많은 공적으로 승진 함에도 자랑과 자만이 없는 겸손하고 고매한 인격자! 정도(正道)라면 반드시 실천하는 언행일치의 성실한 인간! 선견지명(先見之明)과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지혜로 외적의 침공에 대비 평소 군비를 정돈하였고, 세계 최초의 철갑 거북선을 창제한 지성과 창의성!

국왕의 의주 피난으로 인한 국정 공백때는 둔전제 실시로 군량미 확보와 군비 대책은 물론 피난민 구호에 이르기까지 힘을 다 하였고, 해로 ‘통행첩’ 제도로 간첩 활동을 수호하고 안정시킨 불멸의 공적은 공의 위기 관리 능력과 영도력을 알 수 있으며, 능하신 필재와 시조의 사설에도 구국과 호국의 시름밖에 없는 그 님!

당쟁의 와중에 가진 모략과 중상에도 초연 하였고,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와 강한 의지력, 자립과 근면성, 분별력과 민주정신은 자연인으로서도 명실공히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이룬 원만한 인격자임을 알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능력과 믿음이 많았기에 수 많은 피난민이 그의 뒤를 따랐고, 진실과 덕망을 쌓았기에 공을 맞이 하는 환영과 전승의 행렬이 수십 리를 이루었다니 실로 백성을 하나로 통합하는 위대한 지혜와 덕성을 겸비한 민족의 성웅이요 지도자임을 새삼 절감케 한다.

이와 같이 님께선 기본 원칙 위에서 수세에서 공세로! 열세에서 강세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그 능력! 이 모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정치와 사업경영에서부터 가정과 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델과 귀감이 됨을 강조 하고자 한다.

만일 장군이 아니었다면 어느 누가 임진년 국란을 극복하고 아니면 이 나라의 운명은 어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풍전등화의 지난 조국의 운명! 또한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임란전과 유사한 안으로는 양분된 이념의 갈등과 끝이 보이지 않는 부정부패, 밖으론 일본의 독도 야욕과 반성 없는 역사 왜곡, 잠꼬대 같은 중국의 고구려 영토 야욕 등 이런 현실 속에서 충무공의 지혜와 덕망, 리더십을 겸비한 영도자의 출현을 갈망하고 온 국민은 공의 얼과 정신을 사표 삼아 실천하는 국민이 될 때 오늘의 난국을 돌파 하는 유일한 길임을 확신한다.